

文化遺蹟總覽

江原道編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江 原 道

江原道

春川市	341
原州市	345
江陵市	349
束草市	363
春城郡	366
洪川郡	374
横城郡	383
原城郡	388
寧越郡	397
平昌郡	407
旌善郡	412
鐵原郡	415
華川郡	422
楊口郡	424
麟蹄郡	426
高城郡	430
襄陽郡	437
溟州郡	446
三陟郡	458

原州市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2-22 -001	旌忠閣	原州市 開運洞 山 4	조선 世祖 때 生六臣의 한 사람인 元昊의 忠節을 後세에 傳하기 위 하여 積宗 29년(1703) 그의 鄉里에 建立하였으나 6.25動亂 때 破壞되 었던 것을 1970년 補助金과 賛助金으로 碑石과 碑閣을 再建하였다. 碑는 높이 2.2m 폭 52cm이다. 碑名은 “忠臣觀瀾元先生旌忠碑”이다	元氏宗中	
0402-27 -002	原州開運洞 善政碑	原州市 開運洞 구만이	원주고등학교를 지나 “구만”으로 가는길 높이 약 1.2m, 폭 60cm 의 碑가 있는데 “金公善政之碑”로 되어 있는데 洞里에서는 一名 도깨 비碑로 부르는데 전설로는 정태형이라는 사람의 3代祖인 정兵使가 소년시절에 혼자 있을때면 어파금 도깨비가 나타나 업드려 절하며「병 사님 안녕하십니까?」하여 소년은 커서 내가 병사가 되는가보다 하였 는에 청년이 된 정병사는 금강산에 들어가 修學한후 고향으로 돌아오 는 길에 원주 구만리에 들어서는데 키가 장승같은 늄이 나타나 절을 하면서「병사님 이제 오십니까?」하여 정병사는「너는 누구냐?」하자 「저는 金公이 올시다」하고「안녕히 가십시오」한 후 사라졌는데 그 후 과연 정병사는 제주목사를 거쳐 병사가 되었는지라 정병사는 도깨 비의 도움이라하여 「金公善政之碑」라는 도깨비 碑를 세웠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私有	
0402-25 -003	原州鄉校	原州市 明倫洞 258	고려시대에 建立하였다고 전하며 조선 世宗 4년(1422)에 原州牧使 申浩가 重建하였고 壬辰倭亂 때 全燒된 것을 宣祖36년(1602)에 原州牧 使 李澤이 다시 大成殿을 重建하였으며 宣祖 41년(1607) 牧使 林取 廷이 明倫堂과 東·西齋를 建築하였다고 한다. 6.25 때 일부건물이 파 손 되어 없어지고 大成殿·明倫堂·書齋·三門이 남아있다.	鄉校財團	1969.10. 補修
0402-06 -004	江原監營門樓 및 宣化堂 <地有 3>	原州市 一山洞 54	宣化堂은 고려 成宗 4년(985) 初創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것을 조선 顯宗 때 (1660~1674) 原州牧使였던 李後山이 重建하였다고 하며, 門樓는 고려 忠肅王 때 (1314~1330) 건립하였는데 조선 太祖 4년(139 6) 宣化堂을 監營廳舍로 하면서 江原監營門樓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6.25 때 많이 파손된것을 보수하였으며 宣化堂은 한동안 郡廳에서 사 용하여 窓門을 내는 等 改造되어 있다. 門樓는 正面 3칸 (9.2m) 側 面 2칸(5.1m) 겹처마 八作자붕의 2層樓閣이며 아랫칸에 門을 달았 다. 宣化堂은 正面 7칸 側面 4칸의 팔작 집이다. 宣化堂 옆에 ㄱ字形 木造瓦葺의 청운당이 있다.	南一有	1971.12.16 指定 1974 번화
0402-10 -005	原州中央洞 石佛坐像 <地有 4>	原州市 一山洞 554	원래 中央洞(하동리)에 있던것을 日帝 때 일본人들이 남산 추월대로 移轉하였던 것을 1962년 5월 옮겨왔다. 머리가 파괴되어 없어진것을 다시 만들어 後補한 것인데 오히려 보기 쉽게 되었다. 坐高 1.15m 胸 폭 1.43m 坐臺 높이 1m인데 坐臺는 둘레 3.15m 두께 25cm의 원형	市有	1971.12.16 指定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 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판석을 地臺石으로 놓고 下臺는 팔각형에 각面 하나씩의 眼象을 조각하고 위에 複瓣雙葉의 覆蓮을 덮었으며 上臺는 仰蓮으로 장식한 위에 8개의 莲花를 각面 1개씩 놓았다. 離末麗初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0402-11 -003	原州中央洞 五層石塔 <地有 5>	原州市 一山洞 54	江原 監營門樓前 原城郡 應舍 들에 있다. 원래 中央洞(하동리) 寺址에 있던 것을 1962년 5월에 移轉한 것으로 移轉過程에서 손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2重基壇의 5層石塔으로 相輪部는 없어졌다. 甲石上面에는 塔身을 받는 2段의 물당이 있고 屋身에는 4隅柱外에 별다른 彫飾이 없다. 屋蓋는 얇은 평인데 屋蓋받침은 3段이고 처마의 線은 아랫線은 水平이고 윗線은 轉角부분에서 反轉하는데 初層에서 4層까지는 屋身의 높이와 폭 및 屋蓋의 폭이 같은 비율로 체감되다가 5層에 가서 체감율이 약간 변화를 보여 5層屋身의 높이가 4層屋身보다 커졌다.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된다.	市 有	1971.12.16指定
0402-11 -007	原州一山洞 石塔材	原州市 一山洞 감리교회	감리교회 앞마당에 파파된 方形 石塔材가 놓여 있는데 基壇甲石 1개와 初層屋身 1개인데 甲石 中央에는 2段의 물당이 있어 屋身을 받았으며 屋身에는隅柱가 彫出되었고 각面 1軀씩 四天王像이 陽刻되어 있다. 屋身 上面 中央에 舍利孔으로 보이는 圓孔이 있다.	私 有	原州·原城鄉 土誌
0402-22 -008	金悌甲忠烈碑 및 忠烈塔	原州市 鶴城洞 329-5	조선宣祖 25년(1592)壬辰倭亂 때 原州牧師로 있던 金悌甲이倭敵을 맞아 勇戰奮鬪하다 戰死한 戰功을 後세에 傳하기 위해 조선顯宗 11년(1670)에 세운 忠烈碑와 1966년에 세운 忠烈塔이 있다. (碑文 原州原城 향토지 p-595) 忠烈碑는 碑身 높이 1.5m인데 龜趺는 龜頭가 완전히 뒤로 물려져 있는 것이 특이하며 碑頭는 屋蓋로 덮었다.	市 有	1971.10.16~ 10.30 補修
0402-23 -009	李殷贊追慕碑	原州市 鶴城 2洞 445	1905년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자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一念으로 義兵을 일으켜 李仁榮을 總隊長으로 하고 그의 摩下中隊長으로 1萬餘名의 兵力を 指揮하여倭兵과 싸우다가 逮捕되어 서울 龍山倭軍兵營에서死刑當한 李殷贊을 追慕하기 위해 1962년 3월 1일 建立하였다. 높이 2.9m 폭 1.8m의 花崗岩으로 된 것이다.	市 有	
0402-11 -010	傳 天王寺址 出土 石塔材	原州市 鶴城 1洞 法雄寺	法雄寺는 1971년에 創建, 一軍法堂인데 이곳에 天王寺址에서出土된 것으로 전하는 石塔材가 있는데 初層屋身으로 보이는,隅柱가 彫出되고 각面 1軀씩 四天王像이 陽刻된 屋身石 1개와 2層屋蓋石으로 보이는 屋蓋石 1개이다. 屋蓋石은 4段의 받침으로 되었고 屋蓋가 두꺼운 편이다.	法雄寺	
0402-08 -011	靈泉寺	原州市 台庄 1洞 122-1	원래 今傳寺址인데, 이곳에 있던 고려末의 3層石塔(寶物 358호 普濟尊者 舍利塔) 2基가 반출되어 지금은 서울 景福宮에 移轉되어 있다	金大淳	
0402-30 -012	原州 台庄洞 古墳	原州市 台庄洞	1967년 7월 조선시대의 粉青沙器瓶 1점이 出土되었다.	私 有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2-23 -013	王女福蘭公主 胎室碑	原州市 台庄 2洞	原州市 台庄洞 파출소 뒷산에 있으며 碑台, 碑身, 碑頭가 1石으로 되었는데 碑頭는 蓮葉 1개를 써운것처럼 조각했다. 조선 成宗 17년 (1486)에 세운 것이다. 전하는 전설로는 옛날 公主 보기가 소원인 임금이 公主를 낳게 되자 크게 기뻐하여 이곳에 胎를 묻게되어 洞名이 태장동이 되었다고 한다.		
0402-30 -014	原州鳳山洞 古墳	原州市 鳳山洞	1965년 4월 조선初의 白磁접시 1점, 白磁사발 1점 白磁대접 1점이 출토되었다.	私 有	
0402-31 -015	閔肯鎬墓	原州市 鳳山 1洞 山 5-8	韓末 原州 鎮衛隊 特務正校로 있던 그가 軍隊(鎮衛隊)를 강제 해산시키자 李殷贊의 倘義軍에 合勢하여 各處에서 激戰을 벌리다가 1908년 原城郡 所草面 衣冠里 능머루벼덩에서 부상당하여 橫城郡 安興面 講林村(당시는 寧越郡)에서 싸우다 포위되어 敵에게 포로가 되어 되자 自決하였는데, 그의 副將이 尸身을 모시고 와서 原州市 平原洞에 모신 것을 人家가 많아져 茂實洞으로 옮겼다가 1954년 4월 檢準 將軍이 現在의 墓所로 移葬하였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전국공로훈장단장이 수여되었다. 封墳 높이 1.9m 폭 4.3m 墓碑 높이 1.46m 폭 47cm 두께 22cm	私 有	
0402-22 -016	閔特務公 忠魂塔	原州市 鳳山 1洞 山 5-8	舊韓末 李仁榮, 李殷贊과 合勢하여 義兵을 일으켜 忠淸, 慶尙道를 다니며 倭兵과 싸우다 1909년 寧越(現 橫城郡 講林村)에서 死亡한 閔肯鎬를 追慕하기 為하여 1954년 當時 北部地區 警備司令官 檢俊將軍이 建立하였다. 세멘트로 세웠는데 여기저기 갈라져서 보기에 흥하다. 높이 5.5m이다.	姜相俊	
0402-10 -017	原州鳳山洞 菩薩立像	原州市 鳳山 1洞	菩薩立像 1軀가 있다.	私 有	
0402-10 -018	傳 天王寺址 菩薩立像	原州市 鳳山洞 山 5	現在 天王寺에 있는데 머리에는 익선판 모양의 寶冠을 썼고 오른손은 위로 들고 내려서 아랫배에 대고 있는데 手印은 확실치 않다. 法衣는 양쪽으로 갈라서 느렸으며 옷주름은 兩足 각기 5개의 U字文으로 표시했다.	私 有	
0402-17 -019	原州鳳山洞 幢竿支柱 <地有 49>	原州市 鳳山 2洞 1155	봉천 내 둑 옆에 있는데 口傳에 依하면 신라末期 천왕사라는 사찰에 세워졌다 하며 6.25 以前까지 完全하게 保存되어 왔으나 한쪽이 戰亂으로 切斷되었다. 花崗岩製이며 높이 4.3m, 폭 55cm 竿台石 크기 1.8m×1.22m×7.5cm이다. 커다란 自然岩의 양쪽을 파서 支柱石을 끼우고 가운데는 竿座를 彫出하였는데 竿을 끼워 고정시키도록 竿孔을 만들었고 支柱는 方形石柱의 모를 죽이고 頂上은 4面에서 줄여올라가서 가운데가 뾰족하여 혼히 볼수있는 頂上이 4分圓型인 瞳竿支柱와는 다르다.	市 有	1976.6.15 指定
0402-10 -020	原州鳳山洞 石佛坐像	原州市 鳳山洞 二區 새말	8角 臺座와 光背를 갖춘 石佛坐像인데 얼굴과 손은 마멸이 심해 잘 보이지 않고 臺座는 中臺 이하가 묻혀서 보이지 않는에 中臺는 8角인	私 有	

管理番號 (指定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隅柱外各面 1軸씩 八部衆을 陽刻하였으며 上臺는 仰蓮의 莲花로 받친 半珠形이다. 光背는 寶珠形인데 頭光은 一條의 陽刻된 圓形의 線上에 5개의 莲花를 배치하고 線內에는 花文을 두줄로 장식했고 光背의 周緣은 火焰文으로 彫飾했다. 衣文은 繖細하고 목에는 三道가 있는데 左手은 降魔觸地印을 했던 것 같고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었는데 手印이 확실치 않다.		
0402-31 -021	元天錫墓	原州市 杏邱洞 山 37	原州 元氏의 中始祖로서 고려 말의 隱士인데, 字는 子正, 號는 軫谷, 本貫은 原州이다. 일찍이 李芳遠(太宗)을 가르친바 있어 太宗이 즉위하자 여러차례 기용하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墓所는 雉岳山下에 있고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祭享한다. 封墳 높이 1.7m 폭 5m 뿐 비 높이 1.4m 폭 55cm	元鎬順	
0402-18 -022	元天錫神道碑	原州市 杏邱洞 山 37	전체높이 2.3m 碑身 88cm×28.5cm×1.5m인데 조선 顯宗 11년 (1670) 3월에 세웠다. 碑文은 許穆 撰 및 篆에 李命殷 書인데 碑座는 모를 죽인 方形石이고 碑頭는 屋蓋를 염었다.	元鎬順	
0402-08 -023	普門寺	原州市 杏邱洞	雉岳山 中複에 있는데 옛 寺址에 새로 세운 寺刹이며 옛터에서 출토된 青石塔(現在 5層)이 大雄殿 앞에 있는데 塔은 神勒寺多層石塔과 비슷한 手法의 조선시대의 作品이다.	姜商俊	
0402-08 -024	國享寺	原州市 杏邱洞 98	雉岳山麓에 있으며 신라 歇順王때 無着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처음에는 古文庵이라 하던것을 조선 定宗때 公主의 身病이 이곳에서 完治되었다 하여 王命으로 重建하여 東岳壇이란 塘을 모으고 春秋로 護國大祭를奉行하였다 하며 肇宗 6년(1680) 御命으로 寺名을 國享寺라 칭했는데 그뒤 황폐해진것을 1949년 重修하였다. 法堂 1棟 寮舍 2棟 等 總建坪 185m ² (56坪)이다.	全龍浩	1970. 補修
0402-12 -025	國享寺 普庵堂浮屠	原州市 杏邱洞 98	높이 약 1.6m이며 “普庵堂大禪師靈塔”이란 刻字가 있다. 바로 옆에 파괴된 浮屠 1基가 남아있다.	全龍浩	原州原城鄉 土誌
0402-08 -026	國享寺 東岳祭壇址	原州市 杏邱洞 98	大雄殿 西北쪽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土壇만 남아있다. 조선 定宗때 百日祈禱를 드려 東岳山神靈의 加護로 公主의 病을 完治하였다 하여 王命으로 東岳壇을 쌓고 春秋로 護國大祭를奉行했다고 한다.	全龍浩	
0402-27 -027	元昊旌閣	原州市 觀雪洞 개성	生六臣의 한사람인 元昊는, 字는 子虛, 號는 霧菴 觀瀾으로 本貫은 原州이다. 別將 憲의 아들로 나서 조선 世宗 5년(1423) 式年文科에 급제하여 文宗때 集賢殿 直提學에 이르렀으나 首陽大君의 위세가 날로 더하자 原州에 隱居하다가 端宗이 즉자 寧越로 가서 3년상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世祖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여생을 마쳤다. 肇宗 29년(1703) 旌門이 세워졌다. 謂號는 貞簡이다.	宗中	1971. 8. 18 再建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져 있다. 基壇下부는 埋沒되어 알 수 없으나 基壇面石은 4枚로 竹고 隅柱만 彫刻되어 있으며 撑柱는 없다. 甲石은 2枚의 둘로 되었고 2段의 副緣이 있다. 初層塔身만 2枚石이고 그以上은 모두 屋身屋蓋가 각각 1石이다. 屋蓋받침은 5段이고 上面에 2段의 물정으로 上層屋身을 받고 있다. 落水面은 平薄하며 轉角되는 4隅의 추녀끝에 小圓孔이 있어 원래는 風鐸을 달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탑에 관한 것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소개되고 있다. 고려시대 탑으로 추정하고 있다.		
0407-10 -023	横城上洞里 石佛坐像 <地有 20>	横城郡 公根面 上洞里 495의 1	上洞里 3層石塔과 나란히 있다. 蓮花臺座 위에 結跏趺坐한 如來坐像으로 머리는 螺髮이고 頭頂의 肉髻는 넓은 편이고 通肩衣를 걸쳤다. 座臺는 中石이 하가 매몰되어 알 수 없으나 上臺는 複瓣의 蓮花를 2段으로 들린 仰蓮인데 佛像에 비해 座臺가 작다. 높이 6.5m이다.	横城郡	1971.12.16指定 1972년 보수
0407-11 -024	横城上洞里 三層石塔 <地有 21>	横城郡 公根面 上洞里 495의 1	조선 太祖때 自然히 廢刹되어 潛岱山 松嶺峰 아래 三元帥를 좌측寺谷으로 移刹하였다고 하며 그것이 成德寺라 한다고 한다. 塔은 3層으로 基壇部 甲石以下는 매몰되어 보이지 않고 相輪部는 없어졌으며 3層屋身은 본래의 것이 아닌듯 하다. 初層屋身에 비해 2層屋身의 높이가 1/3 이상의 체감을 보이고 隅柱만 彫刻되었고 다른 彫飾은 보이지 않고 屋蓋받침은 4段이다. 屋蓋의 치마線은 아랫線은 水平을 이루었으나 윗線은 轉角부분에 가까워지면서 위로 들리어 全體적으로 신라石塔系의 樣式이며 羅末의 作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높이는 1.5m이다.	横城郡	1971.12.16指定
0407-27 -025	世德祠	横城郡 公根面 上洞里 560	横城趙氏의 重始祖인 趙永仁(고려 仁宗 11년(1133)~神宗 5년(1202))과 그 아들 沖(고려 明宗 1년(1171)~高宗 7년(1220)), 그리고 孫子 琦의 3대가 出仕하였다 하여 三元帥라 하며 이곳의 지명을 三元帥풀이라 한다. 後孫들이 이곳에 祠堂을 건립하여 春秋로 祭享을 올리고 있다. 神門은 소흘 三門이고 神堂은 正面 3칸, 側面 2칸 겹쳐 마 뒷배지붕인데 1976년에 새로 新築하여 세멘트 기와를 올렸다.	조형진	
0407-07 -026	龍雲寺址	横城郡 書院面 鴨谷里 120	龍雲寺란 銘瓦가 發見되어 寺名이 알려졌으며 石佛坐像 1軀과 石塔 1基가 남아 있어 寺址임을 짐작케 하는데 옛날에 水害로 因하여 부처가 묻힌바 있었는데 그해에 질병이 반연하여 근심하던 중 이 마을에 살던 鄭氏에게 부처님이 現夢하여 묻힌 부처를 꺼내라 하여 꺼냈더니 질병이 없어졌다는 傳說이 있다.	私 有	
0407-10 -027	龍雲寺址 石造毘盧舍 那佛坐像 <地有 42>	横城郡 書院面 鴨谷里 120	方型座臺위에 結跏趺坐하고 智卷印을 하고 있는데 螺髮에 肉髻는 보이지 않는다. 座臺는 下臺가 覆蓮으로 덮고 中臺는 眼象 1軀가 크게 조각되었다. 上臺는 仰蓮으로 膝幅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졌다. 높이 1.65m이다.	横城郡	1973.7.31指定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7-11 -028	龍雲寺址 三層石塔 <地有 43>	橫城郡 書院面 鴨谷里	基壇은 2층基壇이며 上層基壇의 面石은 4隅柱와 中央에 撐柱을 두었다. 甲石은 한쪽이 깨어져 나갔으며 甲石 上部에 仰蓮의 屋身의 피임이 있는 것이 특이하며 屋身에는 隅柱만이 影出되었고 屋蓋는 极薄하고 추녀의 아랫선은 水平이며 윗선은 4隅에서 反轉하는데 初層塔身에 비해 2층 이상이 급격한 체감을 보이고 있다. 羅末麗初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作品이다. 높이 4.8m이다.	元鎬徵	1973. 7. 31指定 考古美術 6卷 6號

原城郡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 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8-10 -001	原城平庄里 彌勒佛	原城郡 所草面 平庄里 117의1	원주→구룡사간 塔고개 고개마루 도로 옆에 있으며 전체 높이 1.25m, 頭高 1m, 몸체 2.8m이다. 임진왜란때 이 고개에 살던 할머니가 왜군을 쳐부수고 공을 세워 미륵상을 건립하였고 그 신비로움을 칭하여 이 미륵불을 마귀할머니라고 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12층의 塔도 이 고개에 있었는데 日帝때 서울로 반출되었다고 하며 탑고개라는 명칭은 그로 인한 것이라 한다.	김주홍	O
0408-40 -002	原城平庄里 부채고개 三·一運動 遺蹟	原城郡 所草面 平庄里 부채 고개	横城의 만세시위(1919년 4월 1일)에 참가하였다 왜경에게 피살된 所草面屯屯里거주 강달회와 하연현의 장례날(4월 3일)에 모인 소초면 주민들이 이 풀의 억울한 죽음에 통분하고 소초면내에서도 독립만세 시위를 하기로 합의하여 박영하와 신현철이 중심이 되어 신현성, 유재경, 김홍렬, 장세규, 이순이, 심의성, 김춘선, 김동혁, 신경록, 심능준 등파 협력 각리에 연락 4월 5일 부채고개에 수백명의 주민이 집결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로 행진하여 면사무소 앞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김복기 外 4人	
0408-11 -003	原城平庄里 石塔	原城郡 所草面 平庄里	四層의 方塔이다.	私 有	
0408-09 -004	立石寺磨崖 阿彌陀如來 坐像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184	立石臺로 부터 西北方 約 20m 멀어진 岩壁에 있으며 頭高 28cm 어깨 폭 40cm 뒷쪽에 頭光과 身光을 나타냈고 結跏趺坐했다. 下端部에는 蓮花臺를 받치는 座臺를 陰刻하였다.	私 有	
0408-11 -005	立石寺石塔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184	조선 太宗이 自己를 가르쳐 주던 스승 耘谷 元天錫을 찾아 繼續自己를 補佐하여 줄 것을 願했으나 耘谷은 雉岳山에 숨어 끝내 나타나지 않으므로 太宗이 그를 생각하며 세운 塔이라 전하나 小塔의 基壇部 甲石 屋身石等을 주워모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높이 2.15m이다.	立石寺	
0408-11 -006	富興寺址 石塔材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富興洞	寺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일부는 民家가 들어서 있는데 民家곁에 파괴된 石塔의 甲石 1, 屋蓋石 2, 屋身 1, 仰花 1점을 수습하여 모아놓았다. 屋蓋반침은 4段으로서 落水面은 추녀쪽으로 내려오면서 경사가 완만해지는 曲面이고 4隅에는 風鐸을 달았던 鈎孔같은 것이 있다. 羅末麗初의 塔材로 보인다.	私 有	
0408-11 -007	原城興陽里 石塔材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文秀洞	寺址와 石垣의 一部가 남아 있으며 五重方塔이 있다.	私 有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8-35 -008	原城壽岩里 瓦窯址	原城郡 所草面 壽岩里	주위에 瓦片이 散在하나 가마의 形態는 없다.	國 有	
0408-11 -009	原城壽岩里 石塔材	原城郡 原城郡 壽岩里	日帝 때 조사기록에 上道谷部落의 東北方 約 545m 小丘의 斜面에 五重方塔이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基壇石 2점과 屋蓋 1점이 파수원 안에 묻혀 있으며 파괴된 塔材가 散逸되고 머리는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甲洙	
0408-10 -010	原城橋項里 佛頭	原城郡 所草面 橋項里	龜龍寺로 가는 도로변에 높이 1.03m 폭 92cm의 거대한 佛頭가 있는데 두구는 쳐졌고 입술은 투박하며 肩間에는 白毫를 表示하고 얼굴은 둥근편이다. 근처에는 寺址의 遺墟를 찾을 수 없으나 전녀편 암벽에 仙女像이라 부르는 조각이 희미하게 있다는 것으로 보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郡 有	
0408-08 -011	龜龍寺大雄殿 <地有 24>	原城郡 所草面 鶴谷 2里 1029	龜龍寺는 신라 文武王 8년(669) 義湘大師가 創建했다는 얘기가 전하며 대웅전자리에 아홉마리의 용이 서식하였다 하여 九龍寺라 하였는데 조선 중엽에 龜龍寺로 개칭하였다는 傳說이 있다. 大雄殿은正面 3칸(11m), 側面 2칸, 檐처마, 八作지붕의 多包집인데 内部에는 닷집이 있다.	龜龍寺	1971. 12. 16指定 삼성각 丹青 1974. 11. 28 ~12. 15 補修 1970. 9. 29 ~10. 15 1973. 11. 5 ~12. 5
0408-08 -012	龜龍寺 普光樓	原城郡 所草面 鶴谷 2里 1029	正面 5칸, 側面 2칸의 닷배집으로 2層樓 마루집인데 2층마루에 깔린 명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것이라고 전한다.	龜龍寺	
0408-08 -013	龜龍寺尋劍堂 說禪堂	原城郡 所草面 鶴谷 2里 1029	大雄殿 左右에 있는 寂舍로서 寻劍堂은 닷배집이고 說禪堂은 八作집이다.	龜龍寺	
0408-12 -014	龜龍寺浮屠群	原城郡 所草面 鶴谷 2里 1029	5基(높이 ① 1.2m 3개, ② 1.4m 1개, ③ 2.8m 1개)인데 원래는 碑 2基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龜龍寺	
0408-40 -015	汝淵洞天	原城郡 地正面 艮峴里 116의1	조선시대 중엽 고식 선생이 이곳에서 風流를 즐겼다는 곳으로 艮峴 鐵橋 건너 右側 水中岩壁에 汝淵이라는 刻字가 남아 있다.	原城郡	
0408-31 -016	趙曠墓	原城郡 地正面 艮峴里 爵洞	趙曠(肅宗 45년(1719)~正祖 1년(1777))은 英祖 때의 文臣으로 字는 明瑞, 號는 永湖이며 本貫은 豊讓으로 尚炯의 아들이다. 英祖 14년(1738) 生員試에 合格하고 英祖 28년(1752) 增廣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였다. 慶尙監司로서 馬山浦와 晉州 駕山浦에 漕倉을 설치하고 貢稅의 수납과 船夫의 紿料를 잘 취급하여 漕運의 贲를 줄여서 백성을 편안케 하였고 通信正使로 日本에 갔을 때 고구마 種子를 가져와 釜山鎮과 東萊에서 裁培토록 하여 번식시켜 나라안에 퍼지게 하여 흉년이 들었을 때 救荒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후 그는 工曹判書, 吏曹判書, 弘文提學, 平安監司를 역임했고 正祖初에 洪國榮一派의 무고로 귀양 가서 金海에서 죽었다. 神道碑와 墓碑가 있다.	豐讓 趙氏宗中	Q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8-18 -017 金悌男神道碑 建造物 第20號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413	螭首 97cm×1.1m×44cm, 碑身90cm×1.67m×30cm, 龜趺 85cm×2.15m×16cm로서 延興府院君(宣祖의 妃 仁穆王后의 父)인 그는 임진왜란때 宣祖를 따라 義州로 흐종하다가 병으로 충도에 남았다가 義兵을 모집, 평양성 탈환에 기여하였는데 光海君 5년(1613) 李爾瞻일파가 그가 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를 하여 3아들과 함께 화를 당했는데 仁祖反正으로 누명을 벗고 安州에서의 戰功을 인정받아 仁祖 2년(1624) 墓所를 禮葬으로 다시 하고 神道碑를 세웠다. 碑文은 申欽撰, 沈悅書, 金尙容篆이다. 龜趺의 거북이 목을 뒤로 돌려 碑身을 보고 있는 것이 특이하여 碑身과 蟒首는 大理石製로 1石으로 되었다.	延安金氏 宗親會	
0408-07 -018 興法寺址 河原忠謨 第1號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517의2	朝鮮佛教通史 太祖 23년 條에 “……王師僧忠謨死, 樹塔于原州興法寺, 王親製碑文……”라는 句節이 있어 麗初에 이미 興法寺가 있었으며, 여기서 忠謨은 真空大師의 俗名인데 興法寺真空大師塔(寶物 365)과 塔碑身石은 1930年代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으며 真空大師塔碑龜趺 및 蟒首(寶物 463)와 石燈材, 3層石塔等이 남아있다.	심재우	
0408-13 -019 真空大師塔碑 龜趺 및 蟒首 <寶物 463>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517의2	碑身 上部 78cm×1.01m, 下部 81cm×92cm, 龜趺 2.52m×1.65m×75cm, 蟒首 1.8m×78cm×99cm인데 碑身은 경복궁에 移置되었고 龜趺와 蟒首만 興法寺址에 남아있다. 龜趺의 머리는 直立龍頭의 含珠形으로 목에는 魚鱗이 있고 龜甲은 正6角形에 가깝고 가운데 卍字와 莲花文을 彫飾했다. 蟒首의 篆額은 “眞空大師” 네자를 두자씩 縱書하였다. 경복궁에 移置한 碑身石은 4片으로 破切되어 判讀不能인 부분이 많은데 碑題는 “高麗國原州……” 아래가 不明이고 “臣崔光胤奉教集太宗文皇……” 일부만 알 수 있다. 碑文은 고려 太祖가 親撰한 것으로 傳하고 崔光胤이 唐太宗 書를 集字한 것이다. 建碑日은 고려 太祖 23년(940)이다. 碑文은 朝鮮金石總覽에 실려 있다.	國有	1968.7.5指定
0408-11 -020 興法寺址 三層石塔 <寶物 464>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517의2	높이 3.69m, 地臺石 폭 2.15m의 2層基壇 위에 方形 3層石塔으로耕作으로 地臺石의 基底가一部 露出되었으며 下臺石과 面石을 一石으로 彫出하되 4個의 돌로 만들었는데 各面에 3개의 眼象이 음각되었으며 2枚로 된 甲石은 경사가 심한 편이다. 上層基壇 面石는 各面 2枚의 板石으로 構成하였는데 4隅柱와 擋柱가 하나씩 彫出되었으며 2枚로 된 甲石은 경사가 있고 角形3段의 둘딩을 두어 塔身을 받고 있다. 塔身은 基壇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初層屋身에 비해 2層以上屋身은 2/3정도로 체감되었다. 各層屋身에는 隅柱가 模刻되었을 뿐 다른 彫飾은 없다. 屋蓋받침은 4段으로 얇고 落水面은 두꺼운데 급한 경사를 이루고 내려오다 추녀끝에서 反轉하고 마지막 옥개받침에서 처마끝까지의 거리가 길어 추녀의 끝은 얇게 보이며 屋頂에 屋身을 받기 위한 一段의 받침이 있다. 相輪部는 露盤단 남고 없어졌다. 고려 초의 탑으로 추정된다.	國有	1968.7.5指定
0408-04 -021 元陣거리	原城郡 地正面	임진왜란때 忠州에서 北上해온倭軍을 맞아 瞻口 龜尾浦에서 江原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道助防將 元豪가 阵을 치고 激戰을 벌렸던 데서 元陣거리라는 이름이 생겼으며, 元豪軍이 退却後 이 地方은 僉軍의 심한 약탈을 당하게 되었는데 임진왜란때 황해도 병마절도사인 元愼의 妻 青松沈氏가 어린아이와 함께 龜尾沼에 投身自殺하여 亂後에 세워진 烈女旌閣과 墓, 元愼의 墓等이 鄰近에 있다.		
0408-01 -022	甄萱城	原城郡 文幕面 厚用里 山 3 (戊辰里)	후백제의 始祖 甄萱이 이 城을 쌓고 王建과 싸워 勝利를 거두게 되었으나 軍糧이 떨어져 곤란할때 甄萱이 괴를 써 江물에 石灰를 풀었는데 王建城에서는 쌀 셋은 물인줄 알고 먹었다가 兵士들이 죽어 敗退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槐亭部落의 南方의 小丘陵上에 約 500m정도 훈적만 남아 있다.	양기철 國有	
0408-22 -023	黃孝子門	原城郡 文幕面 磻溪里 78	조선 宣祖 때 黃戊辰(1567~1652)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父母에 對한 孝誠이 至極하여 이를 讚揚하기 為하여 仁祖 12년(1634) 孝子旌門을 그의 집앞에 세웠다 하며 그가 죽은 뒤 孝宗은 忠孝公이라 諡號를 내리고 忠孝祠堂을 建立하였다 한다. “有明朝鮮國忠臣孝子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果黃戊辰之門”이란 刻板 3개와 “忠孝祠”縣版, 祭器等이 있고 門은 正側·1칸의 맷배집이고 祠堂은 正面 3칸(7.7m) 侧面 2칸(5.7m)에 八作지붕으로 翼工집이다. 둘레에 둘려박은 담은 13.7m × 12.5m이다..	黃寅俊 丹青 및 補修	1970
0408-31 -024	盧依愼墓	原城郡 文幕面 桐華里	墓碑는 “朝敦大夫守讓興都護府使勸農兵馬團鍊副使盧依愼之墓”로 되어 있고 建碑日은 天順元年 3月(조선 世祖 2년(1457))이다. 高麗史索引이나 朝鮮王朝實錄索引에는盧依愼의 名을 볼 수 없는데 墓는 文人石·長明燈·床石이 있고 長臺石을 方形으로 (4.97m×6.67m)하여 護石을 둘리고 封墳을 造成한 것이 고려시대의 墓制를 그대로 쓴 것으로 생각된다. 원주감사로 부임해오면 김某 감사가 말을 타고 오다가 멀리보이는 이 산소를 보고 누구의 산소인가 동리 사람에게 물었더니 옛날 노정승의 묘인데 후손이 없어 벌초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낫을 빌려 손수 벌초를 하고 감영에 도착하여 잠을 자는데 밤에 관복차림의 노정승이 나타나 벌초를 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보답으로 기린산에 그가 죽은 후 묻힐 산소자리를 현동해 주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私有	
0408-07 -025	桐華寺址	原城郡 文幕面 桐華里	原州→文幕國道 사이의 桐華里部落에서 約 1km 떨어진 팔암산 중턱에 위치하여 간혹 瓦片이 발견될 뿐이다.	남윤모 박광범	
0408-07 -026	念佛庵址	原城郡 文幕面 宮村里 山4의 1	國守峯의 東方腹에 있으며 창건유래는 확실치 않고 1950년 부탁된 들이 양철지붕의 건물을 짓고 명액을 잇고 있다.	念佛庵	
0408-33 -027	原城宮村里 先史遺蹟	原城郡 文幕面 宮村里	1973년 4월 磨製石劍 1점, 磨製石刀 1점, 磨製石鎌 4점이 출토되었다.	國有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 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8-38 -028	原城碑頭里 龜趺 및 碑頭 地文第70號	原城郡 文幕面 碑頭里 959의1	원래 후옹리 용바우풀에 있던 龜首를 1軍司令部法堂으로 가져갔다가 1976년 봄 文幕面에서 貴來面으로 가는 地方道로 옮겨다 놓았다. 크기는 1.45m×1.45m인데 龜趺는 6角形의 龜甲文을 조각하고 높은 碑座가 마련되었으며 龜頭는 완전히 뒤로 돌려져 있다. 碑頭는 雲文의 비중이 크고 龍은 작게 조각되었다.	原城郡	1976 移轉
0408-06 -029	興原倉址	原城郡 富論面 興湖里	漕倉이나 漕運은 稅穀과 貨物운반에 이용되었는데 江原道地方의 稅穀을 運搬하는데는 漕運을 利用할 때 區域을 셋으로 나누어 京倉直轄區域과 昭陽江倉·興原倉에 모아서 京倉으로 운반하였는데 興原倉은 原州·平倉·寧越·旌善·橫城·江陵·三陟·蔚珍·平海을 관할하였다고 한다. 現在는 農耕地이다.	박일남外	江原總覽
0408-37 -030	林慶業出生地 哭追慕碑	原城郡 富論面 蓀谷里	이 지역이 지난날에는 忠州牧에 속했던 것으로 將軍의 出生도 忠州로 傳하고 있는데 現在의 行政區域으로는 이곳이다. 將軍은 조선 中期(1594~1646)의 名將으로 字는 英伯, 號는 孤松, 本貫은 平澤이며 判書 整의 後孫이다. 光海君 10년(1618) 武科에 급제하였으며 仁祖 2년(1624) 李适의 亂때 鄭忠信의 휘하에서 功을 세웠고 1633년 清北防禦使겸 寧邊府使에 기용되어 白馬山城과 義州城을 修築하고 明의 叛徒 孔有德의 반란을 토벌하여 明나라로 부터 總兵 벼슬을 받았다. 丙子胡亂때는 白馬山城에서 싸워 적의 進路를 막았으며 철저한 親明排清派로서 1643년 明에 亡命, 明軍의 總兵으로 清나라 공격에 나섰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1646년 沈器遠의 謀叛事件에 관련된 혐의로 送置되어 金自點의 命을 받은 刑吏에 의해 杖殺되었다. 穿宗 23년(1697)에 復官되고 忠州 忠烈祠, 宣川 忠愍祠에 祭享되었으며 謚號는 忠愍이다. 將軍의 出生地로 전하는 곳에서 서쪽으로 約 300m 떨어진 곳에 1968년 7월, 높이 약 3.3m 폭 60cm 두께 45cm의 화강자연석 碑를 세웠다.	原城郡	
0408-13 -031	居屯寺 圓空國師 勝妙塔碑 <寶物 78>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144番	大師는 麗初의 名僧으로 俗姓은 李氏로 고려 太祖 13년(930) 行順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譚는 智宗, 字는 神則이다. 大師는 고려 顯宗 9년(1018) 享齡 89세로 示滅하였는데 謚號를 圓空國師, 塔名을 勝妙라 내렸다. 碑는 고려 顯宗 16년(1025)에造成되었으며 碑身높이 2.45m, 폭 1.26m, 龜趺높이 1.2m, 碑文의 字徑은 1.8cm이다. 碑文은 崔沖撰, 金巨雄 書로서 朝鮮金石總覽에 실려있고 字體는 歐體에 가까운 楷書이다. 碑의 造形은 碑身은 가늘고 龜首는 큰 모양으로 龜首의 彫刻은 寫實의이나 下邊 둘레를 垂直集線帶로 彫飾한 異例의 手法이고 龜趺의 甲文은 重廓으로 正6角形에 가깝고 안에 卍字와 莲花文을 交叉로 陽刻하였고 碑座 4면에는 眼象을 陰刻하였다. 龜頭는 嘴口한 龍頭形인데 獸頭化한 모습이다. 勝妙塔(寶物 190)은 日帝 때 반출되어 지금 경복궁에 移建되어 있다.	國 有	1939.10.18指定 文化財大觀
0408-07 -032	居頓寺址 <史蹟 168>	原城郡富論面 鼎山里 189	작은 溪谷을 건 길이 約 50m, 높이 約 3m의 築臺를 쌓아올린 臺地	國 有	1968.12.19指定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로서 지금은 대부분이 경작지인데 築臺 위 中央部에 中門址가 있고 中門 앞에 築臺가 있고 中門 左右에 廊址가 東西로 나아가 다시 北折한 모습이 露出된石材로 짐작되고 中門址 北쪽에 3層石塔이 남아있고 塔 北쪽에 金堂址가 있으며 金堂 基壇上面 中央에 佛臺座로 보이는 圓形臺石이 있고 原位置인 것으로 보이는 碩石들이 남아 있어 羅末麗初의 寺址로서는 遺存狀態가 良好한 면이다. 金堂址 뒤쪽에는 民家가 들어서 있다. 이 寺址는 이 時代의 寺刹로서는 보기 드문 一塔式伽藍으로 보여서 注目되고 있다.		
0408-11 -033	居頓寺址 三層石塔 <small>地文第71號</small>	原城郡富論面 鼎山里	높이 5.45m의 重層基壇의 3層石塔으로 下層甲石은 2枚로 되어 윗면이 바깥쪽으로 경사지고 가운데 물딩이 있어 上層面石을 받는데 上層面石은 4枚의 板石으로 되어 4隅柱와 中央에 하나의 檐柱를 彫出して 있으며 上層甲石은 一石으로 아래에 1段의 반침이 있고 윗면은 下層甲石과 같다. 初層屋身은 4隅만 彫出되었고 屋身의 높이는 2層以上이 初層의 1/3정도 체감을 보인다. 屋蓋는 처마의 아랫線은 水平이고 윗線은 4隅에서 약간 들리고 있고 屋蓋 반침은 5段인데 屋蓋의 全體的 造形手法이 신라石塔系의 樣式으로 羅末麗初의 作品으로 보인다.	丁哲鎮	
0408-13 -034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 <small>〈國寶 59〉</small>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74의2	智光國師는 俗名은 海麟으로 고려 成宗 3년(984)에 나서 文宗 21년(1067)에 示寂했는데 穩宗 3년(999)에 具足戒를 받았으며 歷代王의 償遇를 받아 德宗 때 三重大師의 號를 내렸었다. 碑는 전체 높이 約 4.55m, 碑身 높이 2.97m, 폭 1.42m의 花崗岩製이며 長臺石으로造成한 2段의 地臺 위에 놓인 龜趺는 下邊은 雲文으로 裝飾되었으며 龜首의 목은 길게 直立하여 前面을 向하고 있는데 목에는 魚鱗이 표현되었는데 머리는 怪獸의 形態이다. 龜甲文은 方形區劃안에 彫出되었는데 그 안에 王字가 陽刻되었으며 碑座는 伏蓮으로 裝飾하였다. 碑面은 外周에 寶相唐草文을 周廻하고 兩側面에는 弄珠하는 雙龍을 음각했다. 碑頭는 위가 활짝 벌어진 蓋石을 얹었는데 4隅의 轉角이 우뚝 솟고 귀꽃을 달고 있는데 全面에 文樣이 조각되었으며 中心에 蓮花가 彫刻된 3層의 寶珠를 얹었다. 碑文은 鄭惟產 撰, 安民厚 書이고 字徑은 表面 2.1cm, 裏面 2.7cm이며 立碑日은 고려 宣宗 2년(1085)으로 朝鮮金石總覽에 실려 있다.	國有 1939.10.18指定 1964.12.24~ 1965.2.27 基壇整備 및 石築補修	
0408-30 -035	原城法泉里 古墳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1973년 4월 中國 六朝時代의 青磁羊形器 1점, 三國時代의 青銅壠斗 1점, 繩蓆文壠 2점, 圓底壺 4점, 平底壺 1점, 舀 1점, 鐵製長刀 2점, 鐵槍 1점, 鐵製馬具 3점이 출토되었다.	私有	
0408-17 -036	法泉寺址 幢竿支柱 <small>遺物 第27號</small>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74의92 (浣村 부락)	法泉里 鳴鳳山에 있는 法泉寺址는 浣村부락의 大部分을 포함하는데 眇竿支柱는 部落의 南方에 있으며 표면에 별다른 彫飾이 없고 上端 内側에 長方形杆溝가 있고 前·後方에서 볼때 上端의 兩쪽 外側이 4分	羅州丁氏 宗中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 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圓形으로 다듬어졌다. 兩支柱 사이에 竿臺石이 끝혀 있다. 높이 3.9m 폭 53cm 두께 64cm이다.		
0408-38 -037	法泉寺址 石造物部材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法泉寺址에서出土된 光背, 石塔材, 浮屠材, 碑臺等을 한쪽에 모아 두었는데 影刻이 우수하고 특이한 것이 많다.	郡 有 ✓	
0408-37 -038	韓百謙出生地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韓百謙(明宗 7년(1552)~光海君 7년(1615))은 字는 鳴吉, 號는 久菴이며 本貫은 清州이다. 그는 易學과 歷史 地理學研究에 考證學的 方法을 適用한 조선중기 實學의 先驅者로서 官界에 나아가서는 寧越郡守·刑曹正郎·清州牧使·戶曹參議·江原道按撫使·坡州牧使등을 역임했다. 그는 벼슬보다 學問을 좋아하여 箕田考, 周易傳義, 東國地理志等의 著述을 남겼다. 原州 七峯書院(현 橫城 書院面)에 祭享되었다.	韓敏愚	
0408-04 -039	契丹族激退地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고려 高宗 4년(1217)에 契丹族이 原州에 侵入하였는데 이때 官軍을 이끈 金就勵將軍에 의해 法泉里 麥谷에서 싸워 크게 이기고 패주하는 敵을 추격 提川 박단재에서 다시 싸워 대승하였다고 한다. 麥谷싸움은 契丹族의 침입을 막아 싸워서 처음 勝戰한 것으로 여기서 그들의 銳峰을 겪으므로서 契丹族의 침입을 물리치는 계기가 된 重要한 戰蹟地이다.	郡 有	
0408-31 -040	丁彥璜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조선 宣祖 30년(1597)~顯宗 13년(1672) 때의 人物이며 字는 仲徽, 號는 默拱翁, 本貫은 羅州이다. 司成好寬의 아들로서 光海君 7년(1615)進士가 되고 仁祖 6년(1628) 別試文科丙科에 급제하여 新溪縣令·掌令·兵曹參知 등을 역임하고 書狀官으로 濬陽에 다녀왔으며 准陽府使·濟州牧使·右副承旨·江原道觀察使를 지냈다.	丁世永	
0408-31 -041	丁範祖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조선 景宗 3년(1723)~純祖 1년(1801) 때의 人物이다. 字는 法世, 號는 海左, 本貫은 羅州이며 志寧의 아들로 英祖 39년(1739) 增廣文科甲科에 급제, 持平·正言을 거쳐 正祖 9년(1785) 大司諫이 되고 大司成·吏曹參議·漢城府右尹·大司憲·開城府留守·吏曹參判·刑曹參判·藝文館提學을 거쳐 知實錄事로서 正祖實錄 順찬에 참여했다. 謂號는 文憲이다.	私 有	
0408-11 -042	原城貴來里 塔上洞	原城郡 貴來面 貴來里 塔上洞	무너진 塔을 수습하여 올려 놓은 것으로 현재 높이는 1.68m이며 基壇部부터 하나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 屋蓋石의 形態로 보아 고려 때 作品으로 보겠으며 稚拙하다.	原城郡	
0408-11 -043	黃山寺 三層石塔	原城郡 貴來面 周浦里 25의 2	신라 景哀王代(924~926) 西應禪師와 鶴西堂大禪師가 黃山寺를 創建할 때 築造한 것이라 傳해져 오며 1970년 무너져 있던 것을 수습했다 한다. 基壇部는 自然岩盤을 利用했고 各層屋身에는 4隅柱가 影出되어 있으며 屋蓋는 두꺼운데 屋蓋반침은 3段이고 相輪部는 없어졌다. 현재 높이는 3m이다. 麗末鮮初의 塔으로 보인다.	黃山寺	1970 복원

管理番號 名稱 (指定番號)	所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8-09 -044 原城周浦里磨崖如來坐像	原城郡 貴來面周浦里 25의2	黃山寺 뒤쪽 猶勒峯上峯 南向한 岩壁에 彫刻된 높이 13m, 胸부 폭 3.8m의 坐像으로 上部의 얼굴과 어깨는 陽刻인데 光背와 下部는 거의 線刻에 가깝다. 結跏趺坐를 하고 左手는 무릎위에서 施無畏印을 하였는데 오른손은 위로 올려 오른 팔에 가볍게 대고 있다. 座臺도 조각이 된 것 같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黃山寺	
0408-07 -045 黃山寺址	原城郡 貴來面周浦里新塗洞	猶勒山의 東面山腹에 있으며 신라 景哀王 때(924~926) 西應大師와 鶴西堂大師가 건립한 黃山寺址로傳하며 1970년에 무너진 塔을 수습한 높이 約 3m의 石塔이 있고 새로 들어선 黃山寺가 新築中이다. 부근에서 1973년 3월 鐻石製 陰刻佛坐像 5점이 출토된 일이 있으며, 고려 중기의 작품인 “天下一松村因幡守”라는 銘이 있는 有柄鏡이 출토된 일이 있다. 寺址 뒷산에 있는 磨崖佛이나, 고려시대 거울의出土로 보아 고려 중기의 寺刹址로 보여진다.	黃山寺	
0408-07 -046 藥師庵址	原城郡 興業面大安里 升安洞	區域面積이 約 15,000坪으로 瓦片이 散在한다.	郡 有	
0408-10 -047 原城梅芝里石造菩薩立像	原城郡 興業面梅芝里 516	洪水로 梅芝川에 埋沒되어 있던 것을 朴敬民의 6代祖 朴時承이 現場으로 옮겼으며 1963년 保護闈을 세웠는데 1966년 洪水로 도파되었다고 한다. 지금 石佛이 있는 場所는 梅芝里 賽水池 북판에 있는 거북섬(둘레 150m정도)의 잔등에 해당하는 곳이다. 고려시대 작품으로 보인다.	朴敬善	
0408-30 -048 原城大安里古墳	原城郡 興業面大安里	1973년 4월 赤色沙鉢 2점, 赤色漆器 7점, 白磁鉢 3점, 白磁小形鉢 9점, 白磁漆器 1점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民墓로 추정된다.	郡 有	
0408-01 -049 鶴鵠山城 <small>地文第27節</small>	原城郡 板富面金岱里 山·2	原州 原城鄉土誌에는 신라 文武王 때 이 城을 짓았다고 하였으나 확실한 考證이 없고 三國史記 卷 50 列傳 10 弓裔條에 “……景福元年壬子投北原賊梁吉 吉善遇之委任 以事遂分兵使東略地於是出宿雉岳山石南寺行襲酒泉奈城 麗鳥御珍等 縣皆降之……”라는 記錄이 있어 신라 眞聖女王 5년(892)경에 궁예가 치악산 석남사를 근거로 하여 인근 여러 고을을 공략한 기록이 있어 이 城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며 고려 忠烈王 17년(1291) 哈丹이 침입해왔을때 元冲甲이 10여 차에 걸쳐 적을 무찔러 城을 지켰고 임진왜란때는 原州牧師 金悌甲이 倭將 森吉成의 軍을 맞아 싸우다가 아들 時伯, 부인 李氏와 함께殉節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6 原州牧 古跡條에 보면 石築으로 둘레 3,749尺이고 城내에 우물 1개와 셀 5개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石築으로 된 약 4km정도의 둘레와 높이는 1~3m가 남았으며 부근에 約 1km거리 를 둔 金臺山城·海美山城과 더불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海美·金臺 두 城은 鶴鵠山城의 外城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原城郡	

江原道

管理番號 (指定番號)	名稱 (指定名稱)	所 在 地	内 容	管理者 所有者	備 考
0408-01 -050	海美山城	原城郡 板富面 金岱里	雉岳山의 서편 중복 봉우리 중간에 있다(鶴鳴山城 참조)	原城郡	
0408-33 -051	原城瑞谷里 先史遺蹟	原城郡 板富面 瑞谷里	1973년에 磨製石劍 2점, 磨製石鐵 1점이 출토되었다.	國 有	
0408-30 -052	原城瑞谷里 古墳	原城郡 板富面 瑞谷里	1964년 4월 조선시대의 白磁小壺 4점, 白磁小瓶 4점이 출토되었다.	國 有	
0408-01 -053	金臺山城	原城郡 板富面	雉岳山의 허리 부분에 있는 石築城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6 原州牧 古跡條에 보면 둘레 6,060尺이고 城내에 우물 3개가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허물어졌다(鶴鳴山城 참조).	郡 有	
0408-11 -054	原城龍岩里 石塔	原城郡 神林面 龍岩里	方塔으로 높이 約 1.8m이다.	私 有	
0408-08 -055	上院寺大雄殿 <small>建造物第25號</small>	原城郡 神林面 城南里 781	신라 말기의 명승 무차이 창건한 古刹로 전하는데 雉岳山中에 있으며, 무차이 修道中에 큰 뱀에게 잡아먹히게 된 평을 구해 주었더니 그 은혜로 한밤중에 종이 울리지 않으면 무차이 죽게 되었는데 평이 자기 몸을 부딪혀 종을 울리고 죽으므로 생명을 구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연약한 평이 자기 몸을 내던져 울린 종소리가 全國寺刹에서 울리는 起寢法의 始源이 되었다는 얘기와 이러한 유래에서 雉岳이라는 山名이 생겼다고 전해온다. 大雄殿은正面 3칸(8.4m), 側面 2칸(5.3m) 겹처마, 八作지붕인데 기와는 세멘트 기와로 번화 했으며 多包집이다. 음각으로 새긴 木碑(上院寺碑)가 하나 남아 있다.	上院寺	
0408-11 -056	上院寺石塔 光背 <small><地有.25></small>	原城郡 神林面 城南里 781	大雄殿앞에 2層基壇의 方形 3層石塔 2基가 東西로 배치되어 있는 雙塔과 東塔 基壇에 기대어 놓은, 半破되어 上부만 남은 石造光背片이다. 塔은 ① 높이 2.9m, ② 높이 2.85m로 약간 차이가 있고 結構수법도 같지 않아 同時に 이룩된 탑 같지 아니하며 西塔은 上層基壇一邊의 面石이 없어져 다른 돌을 넣어 받쳤다. 두 탑 모두 고려시대 塔으로 推定된다.	上院寺	1971.12.16指定
0408-11 -057	原城黃屯里 石塔	原城郡 神林面 黃屯里	四層 方塔으로 높이 約 1.6m이다.	國 有	
0408-08 -058	覺林寺 <small>黃陽禁標</small>	原城郡	雉岳山 東쪽에 있던 철로 조선 太宗이 王이 되기전 글을 읽던 곳이라고 전한다.	私 有	

일 러 두 기

1. 莊錄範圍와 內容

이 總覽은 우리나라의 先史時代에서 近世까지의 指定·非指定의 모든 文化遺蹟을 集大成 한 것으로, 遺蹟이 있었던 터(址)만이라도 확실한 것은 빠지지 않도록 했었다. 다만 지금 우리 손으로 調査의 손길이 미칠수 없는 北韓地域의 文化遺蹟이 빠졌고, 動產文化財·天然紀念物·無形文化財는 除外되었다. 이들 文化遺蹟은 대부분이 우리 민족이 겪어온 哀歎의 記錄이 담겨있고, 傳說이 얹혀 있는 곳들인데, 遺蹟의 內容을 기술함에 있어 文獻上의 記錄은勿論 비록 論理上에 矛盾이 있는 口傳이나 傳說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修整 없이 莊錄하여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우리 祖上들이 가꾸어온 이 땅의 精神的土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이책을 學術資料로 利用할 學者들에게는 潤色되지 않은 原色資料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遺蹟의 種別分類 및 管理番號 附與

全國에 散在하는 約 11,000餘件에 달하는 文化遺蹟에 대한 보다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모든 遺蹟에 固有番號를 附與하였는데, 管理番號는 地域番號(郡單位), 種別番號(40種으로 分類), 地域單位一連番號에 의거하여 만든 것으로, 이것은 管理番號만 보아도 遺蹟의 性格과 所在地域이 드러나고 그 遺蹟의 項目을 찾을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 앞으로 關聯資料의 處理를 管理番號에 의거 一元화 할 수 있도록 하기 為한 것이다.

例： 0101———01———001

(地域番號)———(種別番號)———(地域單位一連番號)

(서울鍾路區)———(城)———(鍾路區 첫 번째 遺蹟)

〔地域番號〕

서울특별시

0101………鍾路區	0102………中區	0103………東大門區	0104………城東區
0105………城北區	0106………道峰區	0107………西大門區	0108………麻浦區
0109………龍山區	0110………永登浦區	0111………冠岳區	0112………江南區
0113………江西區			

釜山直轄市

0201………中區	0202………西區	0203………東區	0204………影島區
0205………釜山鎮區	0206………東萊區	0207………南區	0208………北區

京畿道

0301………仁川市	0302………水原市	0303………城南市	0304………議政府市
0305………安養市	0306………富川市	0307………楊州郡	0308………驪州郡
0309………平澤郡	0310………華城郡	0311………始興郡	0312………坡州郡
0313………高陽郡	0314………廣州郡	0315………漣川郡	0316………抱川郡

0317加平郡	0318楊平郡	0319利川郡	0320龍仁郡
0321安城郡	0322金浦郡	0323江華郡	0324甕津郡
江原道							
0401春川市	0402原州市	0403江陵市	0404東草市
0405春城郡	0406洪川郡	0407橫城郡	0408原城郡
0409寧越郡	0410平昌郡	0411旌善郡	0412鐵原郡
0413華川郡	0414楊口郡	0415麟蹄郡	0416高城郡
0417襄陽郡	0418溟州郡	0419三陟郡		
忠清北道							
0501清州市	0502忠州市	0503清原郡	0504報恩郡
0505沃川郡	0506永同郡	0507鎮川郡	0508槐山郡
0509陰城郡	0510中原郡	0511堤川郡	0512丹陽郡
忠清南道							
0601大田市	0602天安市	0603錦山郡	0604大德郡
0605燕岐郡	0606公州郡	0607論山郡	0608扶餘郡
0609舒川郡	0610保寧郡	0611青陽郡	0612洪城郡
0613禮山郡	0614瑞山郡	0615唐津郡	0616牙山郡
0617天原郡						
全羅北道							
0701全州市	0702群山市	0703裡里市	0704完州郡
0705鎮安郡	0706茂朱郡	0707長水郡	0708任實郡
0709南原郡	0710淳昌郡	0711井邑郡	0712高敞郡
0713扶安郡	0714金堤郡	0715沃溝郡	0716益山郡
全羅南道							
0801光州市	0802木浦市	0803麗水市	0804順天市
0805光山郡	0806潭陽郡	0807谷城郡	0808求禮郡
0809光陽郡	0810麗川郡	0811昇州郡	0812高興郡
0813寶城郡	0814和順郡	0815長興郡	0816康津郡
0817海南郡	0818靈岩郡	0819務安郡	0820羅州郡
0821咸平郡	0822靈光郡	0823長城郡	0824莞島郡
0825珍島郡	0826新安郡				
慶尚北道							
0901大邱市	0902浦項市	0903慶州市	0904金泉市
0905安東市	0906達城郡	0907軍威郡	0908義城郡
0909安東郡	0910青松郡	0911英陽郡	0912盈德郡
0913迎日郡	0914月城郡	0915永川郡	0916慶山郡
0917清道郡	0918高靈郡	0919星州郡	0920漆谷郡

0921.....金陵郡	0922.....善山郡	0923.....尙州郡	0924.....聞慶郡
0925.....醴泉郡	0926.....榮州郡	0927.....奉化郡	0928.....蔚珍郡
0929.....鬱陵郡	0930.....龜尾市		

慶尙南道

1001.....馬山市	1002.....蔚山市	1003.....晋州市	1004.....鎮海市
1005.....忠武市	1006.....三千浦市	1007.....晋陽郡	1008.....宜寧郡
1009.....咸安郡	1010.....昌寧郡	1011.....密陽郡	1012.....梁山郡
1013.....蔚州郡	1014.....金海郡	1015.....昌原郡	1016.....統營郡
1017.....巨濟郡	1018.....固城郡	1019.....泗川郡	1020.....南海郡
1021.....河東郡	1022.....山淸郡	1023.....咸陽郡	1024.....居昌郡
1025.....陜川郡			

濟州道

1101.....濟州市	1102.....北濟州郡	1103.....南濟州郡
--------------	---------------	---------------

〔種別番號〕

- 01.....城(山城, 邑城, 府城, 都城, 農城, 羅城, 塼城)
- 02.....烽燧(烽燧, 烽火臺, 烽燧壘臺)
- 03.....鎮・堡(鎮, 堡, 墓臺, 砲臺, 堡壘)
- 04.....戰蹟地(大捷地, 激戰地)
- 05.....宮(宮, 離宮, 別宮, 宗廟, 社稷壇, 圓丘壇, 淨業院 및 附屬建物)
- 06.....官衙・城廓建物(官衙建物, 公共建物, 城廓建物)
- 07.....寺址(廢刹址)
- 08.....寺刹(現存 古寺刹 및 附屬建物)
- 09.....磨崖佛
- 10.....石佛(石佛, 臺座, 光背等, 石佛에 따른 附屬物一切)
- 11.....石塔(石塔 및 工部材)
- 12.....浮屠(玄妙塔, 浮屠塔, 石鍾, 奉鉢塔 等 各種形式의 浮屠 및 工部材)
- 13.....塔碑(浮屠碑 및 工部材)
- 14.....石燈(石燈 및 工部材)
- 15.....塼塔(塼塔, 模塼塔 및 工部材)
- 16.....石槽
- 17.....幢竿支柱
- 18.....神道碑
- 19.....墓碑(墓表, 墓碣)
- 20.....善政碑(不忘碑, 清德碑, 功績碑)
- 21.....紀念碑(巡狩碑, 紀功碑, 戰蹟碑 事蹟碑)
- 22.....忠孝碑(孝子碑, 烈女碑, 貞烈碑, 旌門, 旌閭, 位碑, 忠義壇碑)
- 23.....其他碑(遺墟碑, 境界碑, 禁標, 下馬碑, 斥和碑, 胎室碑, 文廟碑, 追慕碑 等)

- 24.....書院(書院 및 附屬建物)
- 25.....鄉校(鄉校 및 附屬建物)
- 26.....亭·閣(亭子, 樓閣, 詩社 等)
- 27.....祠廟(祠, 壇, 享院, 廟, 影堂, 影宇, 靈殿 等)
- 28.....陵·園(歷代王后 妃嬪, 世子, 后宮의 陵·園)
- 29.....胎封(胎封, 胎室)
- 30.....古墳(三國時代古墳, 石室墳, 積石木椁墳, 石椁墓, 高麗·朝鮮朝의 失名墓)
- 31.....墓(被葬者가 알려진 墓)
- 32.....先史時代墳墓(支石墓, 石棺墓, 土墳墓, 積石塚, 石墳墓 等 先史遺物이 出土되는 墓)
- 33.....先史遺蹟(先史住居址, 先史遺物 出土地·分布地, 立石 等)
- 34.....貝塚
- 35.....窯址(陶窯址, 瓦窯址 等)
- 36.....古家(民間의 古家)
- 37.....偉人先賢遺蹟(偉人先賢 殉節地·生家·出生地 等)
- 38.....其他石造物(石橋, 曙星臺, 不蓮池, 露柱, 石獸, 石柱, 石冰庫, 石刻, 水標 等)
- 39.....其他木造物(堂脊 府君堂, 城隍堂, 山神閣, 致誠堂 等)
- 40.....其他遺蹟

3. 配列 및 索引

遺蹟의 配列은 行政區域別·地番順으로 했으며 遺蹟의 名稱만 가지고 찾을 때와 관련 유적을 찾는 便宜를 위해 遺蹟名索引·種別索引·人名索引를 別添으로 붙여서 이 總覽이 우리나라 文化遺蹟에 대한 辭書와 같이 活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遺蹟의 名稱

지금 우리나라의 文化遺蹟 가운데에는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 그 固有한 이름은 잊혀지고 遺蹟의 內容에 따라 앞의 種別名稱처럼 城·烽燧·石塔 等의 一般名稱으로만 불리는 遺蹟이 많다. 이에 本總覽에서는 이미 國家 또는 地方文化財로 指定時 名稱이 賦與 되었거나, 固有名稱이 남아 있는 遺蹟을除外한 모든 遺蹟의 固有名稱을 定하였는데 그 方法은 다음과 같다.

例	<u>晋</u>	<u>陽</u>	<u>大</u>	<u>坪</u>	<u>里</u>	<u>支</u>	<u>石</u>	<u>墓</u>	<u>①</u>
	(所在地 郡名)		(所在地 里名)		(一般名稱)		(여러개 있을때 일련번호)		

※ 晋陽大坪里支石墓 ①

5. 記述方法

國漢文을 混用하였는데, 名稱과 所在地는 同音異名을 피하기 위해 漢字로 表記하였고 專門的인 學術用語와 詛傳되기 쉬운 낱말은 가능한 한 漢字를 사용하였다.

6. 管理者·所有者欄과 備考欄의 記載

管理者 및 所有者 欄에는 個人 또는 公共團體 等 소유 및 관리자를 記하였다. 總覽刊行 作業이

進行되는 동안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備考欄에는 指定年月日 補修年月日 參考資料等을 명기 하였는데 補修年月日은 文化財保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國費나 地方費로 시행한 工事외에도 되도록 밝히려 했으며, 參考資料도 구할 수 있는 資料를 모두 참고 했으며, 現地調查와 市郡에서 조사하여 보낸것 等으로 補完하여 가능한 한 충실을 기하려 애썼다.

7. 參考文獻

慶尙南道誌, 上·下, 慶尙南道誌編纂委員會, 1963

釜山市誌, 上·下,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74

順天, 昇州 鄉土誌, 順天文化院, 1975

江原總覽, 江原道, 1975

全羅南道誌, 全羅南道誌編纂委員會, 1969

朝鮮金石總覽, 上·下, 朝鮮總督府, 1919(大正8年)

原州·原城鄉土誌, 原州文化院, 1976

서울特別市史(古蹟篇),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3

光州市史, 光州市史編纂委員會, 1966

鄉土文化基本資料, 江原道, 1977

韓國地名總覽 ① 강원현 ② 충남현, 한글학회, 1974

達句伐 一大邱의 歷史·景觀·傳說一, 大邱市, 1977

增補 井邑郡誌, 崔玄植 編, 1974

全國遺蹟目錄,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1

이것이 韓國이다 (全7卷), 三弘出版社, 1972

韓國美術全集, 同和出版公社, 1974

南海島(南海郡의 古蹟斗 名勝), 李清基 著, 1976

長興郡鄉土誌, 長興郡鄉土誌編纂委員會, 1975

珍島郡誌, 珍島郡誌編纂委員會, 1976

韓國地名辭典, 孫成祐 編著, 景仁文化社, 1974

鄉土史(金泉市·金陵郡), 金泉文化院, 1969

韓國地名沿革考(地名變遷辭典), 權相老 編, 東國文化社, 1966

大東金石目,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2(昭和7年)

朝鮮寺刹史料 上·下(影印本), 中央文化出版社, 1968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발행

安東水沒地區遺蹟發掘報告, 文化財管理局, 1974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朝鮮總督府, 1942(昭和17年) : <古蹟資料>

全南考古學地名表, 崔夢龍, 1975

향토교육자료집, 홍천군교육청, 1973

鄉土誌, 襄陽郡教育廳, 1968

江原文化叢書, 강원일보社, 1973
鄉土誌, 洪川郡教育廳, 1967
佛像鑑賞の知識, 高橋秀夫, 1972(昭和47年)
향토교본, 영월군향토교본편찬위원회, 1972
郡誌, 橫城郡教育廳, 1968
鄉土誌, 寧越郡教育廳, 1967
鄉土誌, 麟蹄郡教育廳, 1969
地方指定文化財目錄(市·道別), 文化財管理局, 1974
發見埋藏文化財目錄, 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의寺刹(1卷~12卷), 韓國佛教研究院 編, 1974~1977,
土鄉誌, 內務部, 1973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查報告, 文化財管理局, 1976
大清昭水沒地域綜合學術調查報告書, 忠北大學博物館, 1976
八堂·昭陽昭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 文化財管理局, 1974
昌寧桂城古墳群發掘調查報告, 慶尚南道, 1977
都城內民俗景觀地域調查研究, 서울特別市, 1976
朝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6
矢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0
榮山江水沒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書, 全羅南道, 1976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查團, 1974~1976
瑞山郡誌, 忠清鄉土文化社, 1975
忠清北道誌, 忠清北道誌編纂委員會, 1975
大邱市史(全3卷),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73
佛國寺, 文化財管理局, 1976
현충사연혁지, 문화공보부, 1975
文化財(1卷~10卷), 文化財管理局, 1965~1976
欣岩里住居址(1卷~3卷), 서울大學校附屬博物館·同 考古人類學科, 1973~1975
韓國考古學年報(1卷~4卷), 金元龍 編 1973~1976
서울特別市韓屋調查報告書, 서울特別市, 1977
교양국사총서(1卷~24卷),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1976
抗日義兵將列傳, 金義煥 著, 正音文庫 91, 1975
嶺南守護史, 陸軍第5286部隊, 1976
釜山의古蹟斗地名, 金義煥 編著, 釜山市, 1975
思鄉錄(南海郡의古蹟斗名勝), 李清基 著, 1973
契丹文化, 昌寧郡教育廳, 盧大錫, 1970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金元龍, 1965 : <韓史地>
文化財大觀 國寶篇, 文化財 管理局, 1967

- 文化財大觀 寶物篇(上·中·下), 文化財管理局, 1968, 1969, 1971
- 文化財大觀 史蹟篇(上·下), 文化財管理局, 1975, 1976
- 指定文化財解說 一國寶·寶物 篇一, 文化財 管理局, 1973
- 全羅北道誌, 全羅北道史編纂委員會, 1970
- 槐山郡誌, 槐山郡誌編纂委員會, 1969
- 慶州市誌, 慶州市誌編纂委員會, 1971
- 蔚珍郡誌, 蔚珍郡誌編纂委員會, 1971
- 清州誌, 清州市誌編纂委員會, 1961
- 華城城役儀軌, 水原文化財保全會, 1965
- 增補 河東郡誌, 河東郡誌編纂委員會, 1972
- 慶尚南道輿地集成, 慶尚南道誌編纂委員會, 1963
- 港都 釜山,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63
- 경주고적교본, 춘추사, 경주시교육위원회 엮음, 1961
- 의병의 고장, 관광 의령, 서울삼성문화인쇄사, 1972
- 慶山郡誌, 慶山郡誌編纂委員會, 1971
- 燕岐郡誌, 燕岐郡誌編纂委員會, 1976
- 향토교육자료(제 2집), 거창군교육청, 1968
- 嶺南樓臺志 慶南篇, 任炳燮編, 1974
- 莞島郡誌, 莞島郡, 1977
- 장성향토문화(특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73
- 장성향토문화(제 3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장성문화원, 1976
- 濟州道(大韓地誌 I), 禹樂基, 1965
- 남국의 지명유래집(제주민속총서 7), 진성기 편, 1964
- 南原誌, 南原郡鄉校, 1972
- 臨瀛(江陵·溟州)誌, 臨瀛誌增補發刊委員會, 1975
- 大邱·達城誌, 大邱·達城誌編纂委員會, 1972
- 서울通史,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73
- 洞名沿革攷(II)(西大門區篇),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77
- 中原의 香氣, 金豐植 著, 農經出版社, 1976
- 洞名沿革攷 (I)(鍾路區篇),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7
- 續·思鄉錄(南海郡의 古蹟斗遺址), 李清基 著, 1973
- 新羅伽倻文化(1輯~5輯), 嶺南大學校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66~1973
- 百濟文化(1輯~9輯), 公州師範大學附設百濟文化研究所, 1967~1976
- 馬韓·百濟文化(1輯~2輯),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5~1977
- 百濟研究(1輯~7輯),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70~1976
- 湖南文化研究(1輯~8輯), 全南大學校湖南文化研究所, 1969~1976
- 畿甸文化研究(5輯~7輯), 仁川教育大學畿甸文化研究所, 1974~1976

- 韓國史,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5
三國遺事, 東國文化社, 1969
三國史記, 先進文化社, 1969
독립운동사(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壬辰戰亂史(上·中·下),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獎學會期成會, 1966
韓國獨立運動史, 國史編纂委員會, 1969
독립운동사자료집(1~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五倫臺古墳群發掘報告書, 釜山大學校附屬博物館, 1973
石村洞積石塚發掘調查報告, 서울大學校博物館·同 考古學科, 1975
固城松川里舍召石棺墓, 東亞大學校 博物館, 1977
東萊福泉洞第一號古墳發掘調查報告, 東亞大學校博物館, 1970
靈岩內洞里甕棺墓調查報告, 慶熙大學校博物館, 1974
造塔洞古墳發掘調查報告,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75
中佳邱洞古墳發掘調查報告,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77
三千浦市의 史蹟斗文化財, 孫 相鳳 著, 1973
居昌屯馬里壁畫古墳 및 灰槨墓發掘調查報告, 文化財管理局, 1974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 文化財管理局, 1976
우리 나라의 文化財, 文化財 管理局, 1970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 (第一輯), 文化財管理局, 1975
慶州皇南洞155號古墳發掘略報告, 文化財管理局, 1973
도산서원증수지, 문화공보부, 1970
칠백의 총보수정화지, 문화재관리국, 1976
행주산성보수정화지, 문화공보부, 1970
오죽헌정화지, 강원도, 1976
芬皇寺石佛群, 文化財管理局, 1967
慶州皇吾里第1·33號皇南里第151號古墳發掘調查報告, 文化公報部, 1969
韓國의 古建築(1~3號), 文化財管理局, 1973~1976
韓國의 文化財, 文化財管理局, 1972
武寧王陵, 文化財管理局 編, 1974
天馬塚發掘調查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74
아산현충사연혁지, 문화공보부, 1969
指定文化財解說 一增補版一, 文化財 管理局, 1975
朝鮮佛教通史(上·中·下), 李能和 著, 慶熙出版社, 1967
考古美術(1號~100號), 韓國美術史學會, 1960~1976
月刊 文化財(1號~72號), 月刊文化財社, 1971~1977
空間(1~26), 空間社, 1969~1977

- 歷史學報(1輯~74輯), 歷史學會, 1952~1977
史學研究(1輯~21輯), 韓國史學會, 1958~1969
白山學報(1號~20號), 白山學會, 1966~1976
梨大史苑(1號~13號), 梨大史學會, 1963~1976
史學志(1~10), 檀國大學校史學會, 1967~1976
史叢(1~22), 高麗大學校史學會, 1956~1977
韓國의建築, 정인국, 1975
의병과독립군, 윤명석, 1977
金剛寺, 國立博物館, 1969
感恩寺, 國立博物館特別調查報告, 1961
慶州路西里 雙床塚・馬塚・138號墳發掘報告, 國立博物館, 1955
鳩岩洞古墳發掘調查概報, 嶺南大學校博物館, 1976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 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慶州仁旺洞(19, 20號)古墳發掘調查報告, 慶熙大學校博物館, 1974
慶南獨立運動小史(上), 三協印刷社, 1966
애국지사묘역조사보고서, 원호처, 1972
해인사안내기, 海印寺誌, 三榮出版社, 1972
百濟文化와扶餘, 洪思俊, 學園社, 1961
新羅文化와 慶州, 秦弘燮, 學園社, 1961
韓國名賢大觀, 藝術文化社, 1969
鄉土서울(1號~34號), 서울特別史編纂委員會, 1959~1976
江華島學術調查報告書, 東國大學校江華島學術調查團, 1977
漢京識略<서울史料叢書(第二)>,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56
忠景公柳珩將軍略傳, 晉州柳氏大宗會, 1972
韓國文化財秘話, 李龜烈, 韓國美術出版社, 1973
忠清南道地方文化財圖錄, 韓國文化財保護協會忠南支部, 1973
無等山, 一由來・傳說・景觀一, 朴增洪 著, 1977
서울城廓, 서울特別市, 1976
佛教美術(1~3), 東國大學校博物館, 1974~1977
慶州의古蹟, 秦弘燮 著, 悅話堂, 1977
三國時代의美術文化, 秦弘燮, 同和出版公社, 1976
韓國佛像의研究, 黃壽永 著, 三和出版社刊, 1973
韓國의佛教美術, 黃壽永, 同和出版公社, 1974
韓國美術史, 金元龍, 汎文社, 1968
釜大史學(第2輯), 釜山大學校 史學會, 1971
韓國高僧集(全11卷), 佛教學研究會, 1974
임진장초(壬辰狀草), 조성도 역주, 1973

- 周留城·白江 位置比定에 關한 新研究, 全榮來, 1976
- 考古學(1~4), 韓國考古學會, 1969~1977
- 仁同·不老洞高靈古衙古墳發掘調查報告, 慶北大學校博物館, 1966
- 善山地區古蹟調查報告書, 檀國大學校博物館, 1968
- 尙州地區古蹟調查報告書, 檀國大學校博物館, 1969
- 塊山地區古蹟調查報告書, 檀國大學校博物館, 1967
- 若木古墳調查報告 一大甕塚發掘報告一, 慶北大學校博物館, 1961
- 安東文化(1~4), 安東教育大學安東文化研究所, 1971~1973
- 金海地區綜合學術調查報告書, 釜山大學校附設韓日文化研究所, 1973
- 韓國人名大辭典, 新丘文化社, 1971
- 國史大事典, 李弘植, 知文閣, 1973
- 全南文化財圖, 韓國文化財保護協會全南支部, 1975
- 佛像, 入江泰吉·青山茂 共著, 保育社, 1973
- 韓國史의再照明, 讀書新聞社, 1975
- 韓國考古學·美術史研究論文·文獻目錄, 國立中央博物館, 1975
- 韓國史研究彙報(1號~18號), 國史編纂委員會, 1973~1977
- 古墳壁畫,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73
- 國寶圖錄, 文教部, 1965
- 指定文化財目錄(市·郡別), 文化財管理局, 1973
- 韓國建築樣式論, 鄭寅國, 一志社, 1974